

제6장 <인본주의 지리학> 발제문

인문지리학 전공 박사과정

20242951 강석영

1. 서론

배가 고픈 사람들이 피시앤칩스 같은 테이크아웃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어떠한 가게를 선택하고 가게되는지를 예시로 들며 시작한다. 튀김옷, 내용물, 가게의 점원, 점포의 분위기나 환경 등 가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삶은 복잡하고 인간도 복잡하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삶의 형태를 결정해야하지만 인간에게는 희망, 꿈, 욕망과 같은 것들도 있다. 또한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공간과학자는 희망과 꿈과 욕망 그리고 상상력 넘치는 인간성을 가지고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계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들의 세계는 '합리적 존재'라는 특정 종류의 가상의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다. 경제학 관점으로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는 항상 비용과 이익을 신중하게 판단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을 한다. 만약 그에게 어떠한 피시앤칩스 가게를 선택할지 물어본다면 가장 가까운 피시앤칩스 가게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상의 존재이자 인물이다.

공간과학자들은 그 세계에서 먼저 사실이 아닌 무언가를 상상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아간다. 특정한 기준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던지, 세계가 평평하다고 상상하자라던지 식이다. 과학은 숫자를 좋아한다. 숫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숫자는 혼란스러운 것들을 질서를 가진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숫자는 우리에게 답을 준다.

1970년대 공간과학의 과잉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이 부상했는데, 이는 인문지리학자들이 공간과학이 결여하고 있는 바를 질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 중 하나가 '인본주의 지리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과학의 부족함을 과학을 창의적이고 상상력 넘치며 생각하는 인간에게 적용할 때 드러난다. 과학은 자연 세계에 적용할 때 잘 적용되며 작동된다. 하지만 과학이 사람들의 인간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편,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공간과학의 복잡성에는 인간의 기본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필사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인 지리적 '법칙'을 탐구하는 공간과학에서는 '객관적 관점'이 '특정한 관점'을 압도했다. '일반지리학'이 '특수지리학'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어딘가의 중요성, 특정 장소의 특수성, 일반적인 것 안에서 특수한 것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강조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지리학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두 가지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의 핵심은 보편적인 것은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 사이에서 경험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반면, 어딘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1970년대 후반에야 자체의 이론을 가진 독자적인 접근법으로 출현 했는데, 이는 공간과학으로 그리고 구조주의로 수행된 연구 방법에 대한 대응이자 인간이 땅과 맺는 관계의 의미와 경험 세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인문지리학에 대한(그리고 인문지리학 내의) 비판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공간과학과 다양한 구조주의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들이 때때로 의도적으로 인간 세계로부터 인간을 제거 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특 특히 데이비드 레이(David Ley)가 에세이¹⁾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 공간과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모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간을 제거하려고 했는지 지적했다. 로버파크 파크의 경우 모든 사회관계를 공간적 관계로 환원하여 자연과학의 기본 논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려고 하였고 레비스트로스는 인간 문화의 논리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구조적 코드를 찾고자 하면서 인간을 해체해야한다고 하였다.

투안(Yi-Fu-Tuan)은 공간과학과 경제학 이론이 내포한 가정의 단순함을 환기시켰다. 투안은 계속해서 인본주의 지리학의 초점은 어떤 앞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공간과학적 사고방식에 대응하여 앞의 무게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험의 관점'을 통해 사람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학이 가정한 '단순한 인간'은 이런 경험을 갖지 않으며, 이는 중요한 결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간은 신체, 감각, 감정을 통해 세계와 접촉해야하며, 이것들을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사소하거나 주관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앤 버티머(Anne Buttimer)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출현했다 하더라도 인본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는 물질주의적으로 동기화된 로봇이 추는 죽음의 무도²⁾보다 인본주의 지리학이 인문지리학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람들이 추는 이 죽음의 무도는 수많은 위험을 동반했다. 객관성이 가능하다는 가정은 오류이며 위험했다. '범주'와 '절차'는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숨기며 객관화 되도록 보이게 하였다.

동시에 과학이라는 가면은 의식과 인간 행위라는 측정 불가능하고 신비로운 세계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지식의 생산 절차에서 주관성을 확실히 제거함으로써 공간과학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표할 수 있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과학은 인간의 꿈, 상상력, 믿음, 의식을 엄격한 과학적 절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론화했다. 효율성, 합리성, 이윤은 기계적 경관에 몰입하여 진정한 인간의 장소를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의식론적, 이론적, 도덕적 수준에서 과학과 충돌했다. 이는 지식의 생산에 있어서 위치성과 상황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는지를 주장했던 페미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주었다.

3. 인본주의 지리학이란 무엇인가

인본주의 지리학을 단순히 공간과학에 대한 대응과 비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분명 인본주의 지리학은 그런 목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인본주의 지리학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깊다. 서구의 인본주의(humanism) 역사에 대한 기본 교재로서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쓴 책³⁾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만이 동물로 추락할 수 있고 천사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 하기에 달려 있다. 인간들은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이지 어떤 신비스러운 힘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인간은 이성, 상상력,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문 지리학이라면 이를 예측 불가능하고 성가신 것들로 취급해 배제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인간을 그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핵심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칼 사우어는 물질 경관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던

1) 「인간 없는 지리학」, 1980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과학적' 개혁에 의해 무대에 올려졌다.

3)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설』, 1486

지리학자인데, 그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서 블라슈가 얘기한 '생활양식' 논제 역시, 인본주의적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버티머의 인본주의 지리학에 영감을 주었다.

한편, 존 커클랜드 라이트는 1946년 미국지리학회장 취임 연설에서 지관념론(geosophy)이라고 이름붙인 지식의 지리학을 제안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지리학자들은 지리적 상상력을 탐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관성이야말로 지리적 탐구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1970년대 중반에서야 '인본주의 지리학'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진 별도의 사고 체계가 출현했다. 핵심 인물로는 투안, 레이, 렐프, 버티머 등이 있다. 이들은 인간과 인간의 의식, 느낌, 생각, 감정을 지리적 사고의 중심에 두고자 했다. 그리고 인문지리학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마이닉(Donald Meinig)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그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특징은 '인간의 경험과 표현에 대한,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지식, 성찰, 본질을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추동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지구 위의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거주 및 그와 연결된 '집'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지리학이란 사람들의 집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연구라고 기술했다. 영어권 세계에서 주택(house)와 집(home)의 차이가 분명하다. 주택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정 종류의 물리적 구조물이다. 주택을 집으로 부른다는 것은 소속감과 애착의 감정을 의미한다. 주택을 집으로 만드는 것은 주택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이 세계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집을 만드는 것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의미의 철학, 곧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토대한 이론의 수용이다. 사람들의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를 기술했고 설명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질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직관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도 이 방법 중 하나다. 인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해석하기 위한 토대로 세계-내-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인본주의자들은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질적인 경험 연구를 수행하는데 관심을 둔다. 이런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적용한 방법으로는 인터뷰, 구술사, 참여관찰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지리학자들이 사용하지 않던 방법이다. 지금도 질적 방법론이 흔히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의 지리학계에서도 주요 연구 방법이라는 사실은 인본주의 지리학의 성공을 보여주는 징표다.

4. 현상학과 실존주의

버티머와 코스그로브와 같은 지리학자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인본주의 지리학의 주요 영감은 보다 최근의 철학인 현상학과 실존주의에서 온 것이었다. 실존주의는 확실히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인간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철학인 반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초반에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매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현상학이다. 현상학은 사물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곧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어떤 면에서 현상학은 철학이라기보다는 방법론에 더 가깝다.

이전에 지리학에서는 장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특정 장소나 공간, 장소들의 차이를 찾았다. 이는 장소의 실제적 본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상학은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정짓는

다. 그렇기에 장소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핵심 질문이 되었다.

세계-내-존재의 개념은 현상학에서 나온 것인데 하이픈(-)은 지향성을 상징한다. 의식이란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며 의식의 이런 특성을 지향성이란 단어로 묘사한다. 결국 세계 그 자체에서 세계-내-존재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 존재는 의식성과 지향성 안에 위치 한다.

5. 공간과 장소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공간과 장소의 이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의 개념은 인본주의 지리학의 이론적 발전에 중심 역할을 했다. 공간과학자들은 장소의 의미를 위치로 사용했을 것이다. 위치는 좌표의 사용으로 단순히 기술될 수 있는 지표면 위의 객관적 지점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방향과 거리를 기술함으로써 다른 위치와의 관계로 기술될 수도 있다.

'장소'에는 이런 위치 개념에 여러 층위가 부가되어 있다. 한 장소는 위치를 가지지만 또한 특정한 형태를 가진 물리적 경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게 가장 주요한 점은 장소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장소에 부착된 의미를 종종 장소감(sense of place)라고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 등장 이후 장소에 대한 지리적 정의는 위치와 의미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장소는 의미를 가진 위치이다. 장소는 하나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장소감'을 가지고 있다. 장소감은 의미를 가리키는데, 이 의미는 한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 개인의 의미이자 공유된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는 세계 내의 사물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핵심은 '경험'이라는 개념이다. 장소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의 핵심에는 이 경험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은 경험의 영역을 통해 사람들과 세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소는 세계-내-존재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세계-내-존재의 방식은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내가 애착을 느끼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세계에 거주하며 그런 세계를 건설한다는 의미다. 거주는 인간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 곧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을 보여준다.

인본주의자들은 특수한 것으로 복귀하고 공간과학의 보편적 주장으로부터 철수하기를 원한다고들 말한다. 곧, 공간과학은 법칙추구적인데 비해 인본주의적 연구는 개성기술적이라고 한다. 의미 있는 위치로서의 장소는 특수한 것, 곧 이 특수한 장소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공간과학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들은 개념으로서의 장소를 사용하고 장소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6. 인본주의 지리학의 실제

1) 인본주의 지리학과 문학

인본주의 기치 아래에서 지리학자들은 소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며 회화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지역지리학자들도 소설에 주목하고는 했다. 이때 소설은 지역을 보다 진지하게 기술하는데 다채로운 역학을 했다. 인본주의 지리학자는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창조적인 문학 작품과 진지하게 관계를 맺고자 했다. 사람과 세계의 관계가 이 문학작품 자체를 창조하는 과정에 드러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설가가 글을 쓴다는 행위가 세계와 관련을 맺는 일이라고 여기고 세계-내-존재의 증거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소설가나 작가는 색다른 시선과 관찰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문학은 경관과 장소에 대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지리적 글

쓰기를 위한 모델이다.

2) 생활 세계 속의 이동성

시먼은 사람들이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세계에 거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데 현상학을 직접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이를 '개인이 자신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를 공간적으로 이동시킨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먼은 움직임이라는 경험이 갖는 본질적 특성을 발견하고 싶어했다. 가장 큰 특성은 대부분의 일상적 움직임이 습관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고 전의식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행위를 신체 발레로 묘사했고 시-공간 일상을 구성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지와 의미의 세계를 통해 생산되는 장소감이 아니라 활동의 반복을 통해 실천을 통해 생산되는 장소감이다.

3) 노인의 생활세계

롤스는 참여자들의 생활 세계에 몰입하여 창조적 대화와 상호 발견을 추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았다. 롤스는 관찰 가능한 행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기초자료와 문헌이 선입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노인들의 지각향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각향성이란 그들의 감정과 선성찰은 그들의 거주 장소와 경험이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특징을 발견하였는데 첫째 직접적인 공간적 맥락 내에서 신체의 능력이 쇠퇴함에 따라 행동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틀에 박힌 일상이 중요해져 정향은 집처럼 잘 아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수한 도식을 내면화한다. 두 번째는 특정 장소에 부여된 애착의 감정이 담겨 있는 저장고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장소의 물리적인 상태보다 감정이 더 주용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은 판타지의 역할이다. 직접적인 위치를 초월해서 과거와 연결되거나 가족의 세계와 연관된 곳을 떠올린다.

7. 결론

인본주의 지리학은 출현하자마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해보다는 설명을 추구하는 실증주의 학자들은 주관적이고 검증 불가능하며 사실이 아닌 의견의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변조되거나 소수만이 이해하거나 추상적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통찰은 지리학적 상식의 밑바탕을 형성하게 되었고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사고, 감정과 지각, 신체, 일상생활의 수행 같은 주제가 지속적으로 인문지리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인문지리학의 연구 방법인 참여관찰, 텍스트 분석 및 시각적 분석, 자기성찰을 포함한 질적 방법론의 수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토론거리>

- 특수한 경험이 보편적인 개념이나 이론으로 나아가고 정립이 될 수 있는지?
-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거나 조정이 되는지?
- 문학과 회화, 사진 등이 지리학적 접근에 있어 유의미한 연결이 되는지?